

북방사 연구의 문제점

金 渭 顯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 . 머릿 글

우리나라의 북방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나 오직 북방만이 육속하고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보면 단군조선의 주요 영역이 여기에 있었고 이어서 부여,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 왔다. 그러기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연구는 일본인이 먼저 시작하였다. 그들은 1930년대 세계의 공황이 일본에도 미치게 되자 내적 불만을 외부로 몰아내기 위하여 1931년 9월 18일 일본군부는 만철폭발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구실삼아 무력으로 이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1932년에는 퇴위후 20년간이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청조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를 옹립하여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워서 침략정책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정당화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책)를 낼 때 조사부 보조원으로 참여하였던 시라도리(白鳥庫吉), 마쓰이(松井等), 야우찌(箭內巨), 이나바(稻葉岩吉), 이케우찌(池內宏), 쓰다(津田左右吉), 세노(瀨野馬熊)등의 어용학자를 동원하여 이미 그들이 연구한 기초 위에 소위 만선사관(滿鮮史觀) 확립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학자의 연구도 계속되었다. 결국은 두 나라의 학자들의 연구는 각기 결론은 나와 있었고 이를 입증하는 짜깁기 논문들이 속출한 것이다. 이 곳은 우리 고·중세사의 터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연구는 물론이고 사료조차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일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우리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고 또 체계를 세워야 하는 일이 급선무였으므로 중국사나 일본사나 심지어 서양사를 한 학자들 일지라도 한국사연구로 돌아서는 형편이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지역 연구에 전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도 북방사학 연구자가 전 동양사 내지 중국사의 한 시대를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뽑아 주지 않았고, 연구비는 대상에서 아주 떨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연구자가 없는 형편이었다. 근래에 중국에서 소위 동북공정이란 정책으로 우리역사 탈취작업이 진행되자 부랴부랴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벼락치기로 연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30여년 전부터 고구려는 중국사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이후 줄곧 예맥 유물, 고구려·발해 고분 발굴을 하면서 조금씩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기미가 보였다. 우리는 일찍이 대비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방어하는 식의

연구는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二. 북방연구는 왜 해야 하는가?

- ① 우리역사의 시발점이 이곳이다.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이곳에서 대국가를 이루어 수 천 년을 경영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며 아직도 이곳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에 이곳의 역사연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 ② 체계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단군조선이 한반도와 백산혹수지역, 요동요서지역에 걸쳐서 경영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세력이 쇠퇴해지자 기자와 위만이 서북일대에 들어와 나라를 세웠고, 그 뒤 한사군도 위만이 경영하던 지역을 차지하였을 것이며, 단군조선의 일부세력이 부여, 맥, 예, 고구려 등으로 남아 있다가 고구려로 총합되고, 그뒤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잃어버린 강토는 역사의 대상이 아닌가? 현재 영유하고 있는 강역의 역사만이 그 나라의 역사고 과거 살던 곳의 역사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역사다라는 중국식 이론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예컨대 몽고제국은 징기스칸이 초원에서 나라를 일으켜 중원은 물론이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북유럽까지 정복하여 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러다가 다시 쇠퇴하여 북으로 물러나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자기들을 살육하고 노예화하여 통치하던 징기스칸을 세계적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추송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런 역사이론이나. 뿐만 아니라 남북조시대의 북조, 요, 금, 원, 청은 북방민족의 역사인데 이를 그들의 정사에 편입시키고 그 당시의 전쟁을 내적인 다툼으로 서술하고 있으니 이는 온당한 역사관이 아니다. 이런 예는 터키는 돌궐에서, 대한민국은 저 북방의 단군조선에서 기원하여 오늘날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뿌리 깊은 역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잘라 역사를 가를 것인가? 여기에는 역사이론의 개발과 동서고금의 예에서 방법이 구해질 것이다.
- ④ 동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마씨의 《사기》에는 조선, 흉노 등을 열전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다. 《한서》에서도 《사기》와 같은 형태로 흉노, 조선 등을 열전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후한서》에서부터는 <동이열전>에 부여국, 읍루, 고구려, 구려, 동옥저, 예, 한, 왜를 한 부류로 엮어 놓았다. 《삼국지》에는 <오환선비동이전>에 오환, 선 비, 동이전, 부여전, 고구려전, 동옥저전, 읍루전, 예전, 한전, 진한전, 변진전, 왜인전을 넣었더니 《진서》에서는 사이(四夷) 동이(東夷)조에 부여국, 마한, 진한, 숙신씨, 왜인, 비리(裨離) 등 10국을 편입시켰다. 어쨌든 우리 고대국가(고구려, 백제, 신라)를 《송서》, 《남제서》, 《양서》, 《남사》, 《수서》, 《구당서》, 《당서》에서는 <동이열전>(東夷列傳)에 편입시켰고 《주서》는 (異域)편에, 《오대사》에는 사이부록(四夷附錄)에, 《구오대사》, 《송사》, 《금사》, 《신원사》, 《명사》에서는 외국(外國)조에 넣었으며, 《원사》에서는 <외이>(外夷), 《요사》에서는 <외기>(外紀)라 하여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夷)내지 동이(東夷)는 이미 요순때부터 중원의 동북방에서 고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이를 우리의 갈래로 예부터 분류해 주었으니 우리 역사는 동이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⑤ 조공(朝貢)은 꼭 주종관계의 전형이었는가? 이 방면에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다. 조공은 이소사대(以小事大)의 한 제도라 우기지만 실은 동아질서에서의 외교적 창구역할이었다. 꼭 어느 일방이 한쪽에

치우처 조공을 바친 것도 아니다. 대개가 중원한족국가에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만 중원국가가 중국인이 말하는 소위 변방국가에 조공을 바친 예도 많이 있다. 예컨대 오대의 후진이 거란의 후원으로 국가를 세우고 책봉을 받았으며, 남송이 금에 신사하며 책봉을 받았었다. 또 유목, 수렵왕조들은 한족의 책봉, 조공등의 질서와는 당연히 다른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요, 금 등은 주변국에 책봉과 조공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거의 평등에 가까운 파격적인 내왕과 교류를 하였다. 북방 유목, 수렵왕조와 남방 한족왕조의 관계와는 다른 관점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三. 북방사연구에 무엇이 문제인가?

(1) 사료의 수집, 정리, 연구가 부족하다.

북방이라 하여 꼭 그 지방에서 쓴 사료만이 중요 자료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유목이나 수렵민족은 문자로 남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 민족이 남긴 사료에 의지하여 왔으므로 왜곡되게 전해왔다. 특히 한족이 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 아니었으므로 비하하여 적어 왔다.

또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와 다른 것을 야만 또는 미개로 규정지어 왔다. 그러므로 반대로 유목문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한족의 문화가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 또 무엇을 문화라 하는가? 그 정리에 따라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서에 얼마든지 요, 금, 원, 명, 청의 사료가 남아 있다. 이를 정리하는 작업도 그들을 바로 보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 송인들의 문집이나 수필에도 새로운 사료들이 많으며 금원시대의 문집도 중요한 사료들이다. 뿐만아니라 원나라는 세계적인 국가였으므로 페르시아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등으로 기록된 사료가 적지 않다. 이외 묘비, 발굴기록, 금석문 등도 중요한 사료들이다. 우리는 이런 사료정리를 할 기회가 적었지만 지금 정리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2) 유목, 수렵지대에서 전개된 역사에 대한 이론부족이다.

유목민의 역사, 농목민의 역사, 수렵민의 역사, 수렵, 농업민의 역사전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목민족의 이동에 관한 학설은 아직도 1920년대의 Ellsworth Huntington (Civilization and climate, New Haven: yale uni. press 3rded, 1924)이나 Franz Oppenheimer (The state, N.Y: B.W. Huebsch ed., 1922) 또는 Lawrence Krader (Formation of the state, N.Y: Prentice-Hall, 1968)의 이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며 유목민족의 작전기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H.G. Creel (The Role of the horse in chinese History, 1964)의 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W. Eberhard (conquerors and Rulers)의 척발씨의 한화설, Karl A. Wittfogel과 풍가승(馮家昇)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1949.)의 정복왕조설 등등 서구인들의 학설을 벗어나서 동양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변천이론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유목·수렵지구의 자연환경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백산호수와 요동요서의 수만리에 달하는 지역은 자연환경이 각기 다르며 기후 풍토도 다르다. 그리고 다우지역이 있는가 하면 과우지역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사는 종족은 그 환경에 순응하거나 또는 도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성이 이루어지며 또 그 환경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따라 산업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또 그 산하의 현재의 명칭이나 역사적인 변화에 따른 명칭의 변화 등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20여 년 전에 중소국경에 양국군의 교전이 있었다. 그때 각 신문에 위치 표시를 하였는데 상류에서 일어난 것을 하류에 표기한 일이 있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지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주요 자료라면 만주국을 만들어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일인들의 자료가 유일한 것이다.

흔히들 이 지역을 일컬어 만주라고들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전이나 사전에는

- (1) 지리적으로 전국시대에 이 땅에 한민족의 식민지가 시작되어 요동·요서의 2군을 두게 된 후 요동이라 일컬음. 만주의 이름은 문수보살의 문수(文殊)의 전음으로 만주(滿住)·만주(滿珠)에 의거한 것이라 함. (역사적으로) 부족이름.(滿洲源流考·部族)(동아일보사, 《漢韓大辭典》, 1963)
- (2) ①만주족 ②(地)만주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1996)
- (3) 중국동북지방 일대의 속칭. 예전엔 민족이름으로 행정상으로는 요령, 길림, 흑룡강의 동북삼성과 내몽고자치구로 나뉘며 중국인 자신은 일반적으로 동북이라 부름. (신기철 등,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7.)

우리의 기록은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시대에는 식민지라는 개념이 없었다. 군을 두었다면 진 이후에 둔 직할령이란 뜻이다. 그러나 그 때는 요동이 이 곳 중심지까지 세력이 미치지 않았다. 또 그 때는 만주란 이름과 무관한 것이다. 또 신기철 등의 해석은 왜 중국 동북지방이라 말하는가? 우리나라 북방의 어디서 어디까지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자전에는 우리와 다소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만주는 부족이름이다. 장백산 동쪽 악다리성(鄂多哩城)의 일 부족이다. 본래 오래동안 중국의 여진족에 부속되어 있었으므로 태조가 일찍이 금의 국호를 연용하여 스스로 후금이라 하였다. 태종이 비로소 청(淸)을 국호로 삼고 중국 입주에 이르러 비로소 태조가 명나라 건주위의 도지휘로서 명을 배반하고 황제라 칭함으로써 황상을 반역한 혐의를 받을 수 있겠다고 느껴지자 비로소 자기 스스로 만주라고 하였다 하며 만주를 주(洲)자 때문에 지명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족명이지 지명이 아니다.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民國65(1976))

그들은 만주는 지명이 아니고 족명이라고 한다. 어쨌든 만주라는 두 글자는 빨라도 청태종 때부터 사용하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만주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 따져서 부족명이라면 백산족수와 요동요서를 담을 수 있는 명칭은 못된다. 일반적으로 만주라면 떠오르는 것이 일인들이 강탈하여 세운 만주국을 떠올리게 된다. 10여 년 전에 몇 사람이 모여 북방민족사연구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다. 그때도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대체로 2가지로 압축되었었다. 북방사연구회와 북방민족사연구회로 이름지어 놓고 왈가왈부하다가 결국 북방민족사연구회로 정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근래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나오는 북방사논총도 아마 고민 끝에 얻어진 결론이라 믿어진다.

(4) 유목·수렵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언어, 풍속, 습관, 종교, 혼상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농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목으로는 그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지역은 동남부 산지, 중부평원, 서북 산지, 북부 대강이 있다. 이곳을 차지했던 종족의 변화도 여러 번 있었고 국가의 흥망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凌純聲의 《松花江下游赫哲族》이란 그의 편저에 의하면 그들의 문화는 조선의 영향, 한족의 영향, 자체의 문화가 혼용된 문화로 기술하였다. 예컨대 언어, 풍속, 이름, 음악 등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5~6년 전 일로 생각되는데 고구려연구회에서 중국홍룡강성에서 온 어느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중요 부분을 옥저(沃沮)언어로 풀어 나갔다. 어떻게 옥저어나고 몰었더니 옥저인들의 집단이 동 사실을 들어서 지금도 일부 지역인들의 언어가 옥저어라 하는 것이다. 반신반의 하였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본인이 1989년에 심양시를 방문하였을 때 그들이 새로 지은 작은 박물관을 소개하였는데 그 박물관의 유물은 주로 철제였고 완전히 맥족의 것이었다. 풍문에 들려오는 이야기인 즉 근래는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잘못 고증한 것인지 아니면 또 무슨 왜곡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맥의 범위와 문화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인 것이다.

또한 같은 언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답사를 통하여 느낄 때도 있었다. 중국어로 산(山)이라고 하면 ‘둘레의 평평한 땅보다 우뚝하게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 이라 하고 구릉(丘陵)은 ‘일반적으로 해발 300 미터 이하로 밋밋한 기복이 있는 저산성(低山性)의 산지. 홍적층(洪積層)의 제삼기층(第三紀層)의 토지에 많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가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예컨대 요대의 제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목엽산(木葉山)은 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산이 아니다. 그 위치는 서라목론하(西拉木倫河)와 노합하(老哈河)의 합류지점이라고 한다. 일본인 마쓰이(松井等)는 지금의 두 강의 합류지점이 요금시대의 합류지점과 큰 차가 없다고 하였다. 김재만은 목엽산은 구릉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두 강의 합류점에 산다운 산이 없고 다만 사부(沙阜: 丘陵)만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론 목엽산은 확실히 낮은 구릉으로 단정하겠다. 필자가 1989년 8월초에 연변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한 마을을 찾은 적이 있다. 이 마을은 100여 호가 사는 우리 동포들의 시범마을인데 초중고교가 있을 정도의 앞서가는 마을이었다. 그런데 마을 이름이 알라디였다. 왜 알라디냐고 물어 보았더니 알라는 여진어로 산이란 뜻이고 디는 ‘底’라는 한자어라고 하였다. 그래서 끝에 마을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붙여 쓰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진어+중국어+한국어가 되어 산밑마을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어쨌든 이 마을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5미터도 안 되는 구릉이었다. 따라서 평지에서 의 산과 산지에서의 산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하였다.

금석문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 1995년 8월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주최 학술 세미나가 북경 근교 대각사(大覺寺)에서 열렸는데 그때 가장 주의를 끌었던 논문이 거란어를 한 자씩 끼워 넣은 대리지역에서 나온 비문이었다. 그 해석은 그 비들의 주인공들은 거란인인데 어떤 연고로 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종족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수십 대를 한자의 비문에 거란문자를 한자씩 써 넣어서 그들의 내원을 알려 왔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비문 한 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거 형태와 의복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거란인들은 근본적으로 동우제가 아니고 전장(氈帳)을 쓴다.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역시 전장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거한다. 거란 태종이 후진을 멸망시키고 개봉에 입정했을 때 거란인들은 궁전 안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궁전 뜰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였다. 그리고 군사들의 식품이나 말먹이 등도 북방에서와 같이 타초곡(打草穀)을 시행하였다.

이는 한인들에게는 생소할 뿐 아니라 농경사회문화에 맞지 않은 습속이어서 커다란 반항을 불러 일으켰다. 어쨌든 언어, 풍속, 습관, 종교 등을 연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四. 어떠한 연구가 바람직한가?

첫째는 기초사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정사에 속하는 《고려사》는 요금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중요사료이다. 저 중국인들은 자기 사료만 중히 여기는 버릇이 있으나 《고려사》만은 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고려는 475년 동안 중원 및 북방왕조와의 관계가 매우 깊었다. 《고려사》에 수록된 그들과의 관계기사는 오월(吳越) 19자, 후량(後梁) 23자, 후당(後唐) 470자, 후진(後晉) 155자, 북한(北漢) 6자, 후주(後周) 250자, 송(宋) 5만여자, 거란 7만여자, 금 12만여자, 원 28만여자, 명 2만4천5백5자로 모두 합하면 약 54만5천4백28자나 된다. 이는 방대한 사료인 것이다. 중국정사나 또는 중국측 사료에 이미 소실되고 없는 쌍방왕래의 조(詔), 표(表) 등의 외교문서가 《고려사》에만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므로 중국의 정사를 보완 수정할 유일한 사료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년월일의 그릇된 부분, 둘째 인명, 지명 등의 오류, 셋째 왕계의 오류, 넷째 사건의 오류등이다.

여기서 요금에 관한 부분만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고려사》에 요에 관계된 기사는 약 7만여 자인데 그 내용에는 요와 고려와의 관계기사가 191개 조항이고, 고려와 요와의 관계기사는 223개 조항이다. 그런데 《요사》<본기>에는 요와 고려의 관계기사가 53조, 고려와 요의 관계기사 80조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요사》<외기>에는 요와 고려의 관계기사가 38조, 고려와 요의 관계기사가 58조뿐이다. 이로 보아 《고려사》가 월등하게 많은 사료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은 본인이 금년 4월 대만 동오대학에서 발표한 <<高麗史>對於研究遼金史的貢獻>이란 논문에 담겨 있다.

다음은 《고려사》로서 《금사》를 보완할 수 있는 사료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려사》의 금대 부분이 가까이 12만자, 이중에 총 990조의 기사가 있다. 금 건국 이전 동서 여진 등에 대한 기사가 584조, 금 건국에서 멸망까지가 406조이다. 반면에 《금사》 외국 <고려>조에는 글자수가 3,835자에 양국 관계기사가 52조인데 그중 금과 고려 관계기사가 22조, 고려와 금의 관계기사가 30조이다. 이렇게 《고려사》와 《금사》를 사료비교하면 큰 차가 난다. 또 《금사》본기에는 금과 고려의 관계기사가 90조, 고려와 금의 관계기사가 178조이다. 이는 《고려사》의 기사와는 역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금사》에 전혀 없는 기사가 《고려사》에는 많이 나온다. 예컨대 생여진 활동, 금 시조 내원설, 국경 영역 문제, 동진국의 반금 독립 경과 등등이 《고려사》에서만 나온다.

반대로 《요사》나 《금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사료도 물론 많다. 그러므로 기초사료의 수집, 정리,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사라고 하여 꼭 한국사연구자가 연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떠나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역사뿐 아니라 언어, 지리, 민속, 음악, 미술, 의상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답사를 통하여 문헌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안목과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넷째, 우리가 지금 그들의 발굴현장에 참여하기도 불가능하고, 또 지금부터 나오는 보고서에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나 기하 나온 발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료로 이용해야 될 것이다.

다섯째, 현지 고로(古老)들의 증언, 전해 오는 전설, 특수언어의 조사 등을 통하여 그들 문화연구의 심층자료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 사료된다.

여섯째, 여태까지 이 지역연구는 이 지방학자들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대개는 비전공자들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연구하여 왔으므로 자세히 읽어 보면 전후모순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을 부회(附會)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역이용할 수 있는 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도 적고 사료도 부족하므로 학회를 통한 소그룹을 통해서든 간에 긴밀한 유대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조직적이며 과학적인 연구활동을 잘 활성화시킨다면 우리 국사는 물론 동북아시아사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 믿는다.

Abstract

Problems involving Researches into the Northern Territory History

Kim Wee Hyun
(Gues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t must be essential for Korea to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Baeksan-Huksoo region north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her ancestors founded a nation for the first time and since then, had long managed the territory.

The Chinese had described the history of our ancient nations in this territory in such chapters edited at the back of their histories as 'Eastern Barbarians' Biographies' or 'Strange Territory', and since the 10th century, they had classified this territory into 'foreign countries'. Recently, however, they have included the histories of Koguryo and Balhae in those of their own history, calling these Korean nations 'their local governments'. For us Koreans, it must be a big problem how to cope with such a historical invasion from China.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ur researches into our history and set a desirable direction for our researches.

The first problem is poor collection and sorting of the historical data as well as poor researches into them. So, it is pre-requisite to collect the historical data dispersed in and out of Korea and sort them systematically to research into them.

The second problem involves poor theories ab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our nomadic

and hunting age. The fact that we accept the theories suggested by the Western historians during early and mid-19th century without doubting them proves that we have not much endeavored to research into this turf of history.

Thir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is territory or the past nomadic and hunting areas. Since personality and industrial activities vary depending on weather or climate conditions, it is very important to research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from a historical viewpoint.

Fourth, it is also required of us to research into languages, custom, habits and religions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territory. since this territory has long been influenced by its natives, Chinese and Koreans.

Lastly, we face the following challenges for a desirable research into our history about the northern territory;

- (1) We need to correct the Chinese historical data in reference to our data. For example, 'History of Koryo' may be a wealth of rich historical data useful to complement the Chinese official history.
- (2) A cooperative researches encompassing relevant disciplines is required. Namely, not only historians but also other professional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olve our historical problems.
- (3) It is essential to carefully review the past excavation reports and pending excavation spots.
- (4) It is deemed necessary to record the testimonies from the aged people living in this territory, their legends and local languages and thereby, reinforce our historic database.
- (5) It may well be useful to collect in time the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es into this territory being conducted by local people and foreigners to be informed of the research trends.

Key words: conditions of the researches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 purposes of the researches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 problems involving the researches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 directions for the researches into the history of the northern territory